

3년만에 개최된 SAU EXPO!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에 3년 만에 SAU EXPO가 개최되었다.

본래 SAU EXPO는 2022년 11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 헬러원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10·29 참사(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와 국내 테마파크, 대학가에서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해 치렀다.

본교 총학생회에서도 10·29 참사(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SAU EXPO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지하였다.

SAU EXPO는 잠정 연기되었지만, 학과에서 준비한 졸업 전시회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는 SAU EXPO

를 취소할지 진행할지에 관해 계약한 업체와 각과 학회
장, 학우들과의 많은 논의 후 SAU EXPO를 1일로 단축
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하였다.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풀 수 있는 SAU EXPO를 계획하면서도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썼다.

학과에서 축제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SAU EXPO가 진행되는 동안 순찰을 하며 질서유지에 힘썼다. 총학생회의 노력으로 학생들은 SAU EXPO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다.

SAU EXPO에서는 SABS(신안산대학교 교육방송국)과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음식 타짜 프로그램, 재능과 끼가 넘치는 학우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과에서는 각종 게임 및 체험부스와 음식부스를 운영하였다. 널로와 케이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3년 만에 개최된 SAU EXPO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편집장 전효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학보사 페이스북 페이지 문의
saupress@naver.com



INDEX

- | | |
|-----------------------------|--------|
| ▶ 모험으로 사는 인생 | 2면 |
| ▶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의 정 김장문화 | 3면 |
| ▶ 만평 | 4면 |
| ▶ 뷰티디자인과 해외 유명 메이크업 | 5면 |
| 아티스트 초청 세미나 | |
| ▶ 학보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다 | 6면 |
| ▶ 학보사를 떠나며 | 7면 |
| ▶ 반려동물과 학회장을 만나다 | 8면 |
| 호텔조리제빵과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다 | |
| ▶ 연예매니지먼트과 단합을 위한 체육 대회 | 9면 |
| 뷰티디자인과 졸업작품 전시회 | |
| ▶ 2022 신안산대학교 신설학과 소개 | 10-11면 |
| ▶ 신안산대 야구부 창단 | 11면 |
| ▶ 2022학년도 여름학기 한국어교육과정 수수료식 | 12면 |
| 기성용 축구단 발대식 | |
| ▶ 망 사용료 | 13면 |
| ▶ 김민성의 미국기행(奇行)기 5 | 14면 |
| ▶ A Halloween Tragedy | 15면 |
| ▶ 학교발전기금 | 16면 |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규현 목사
은혜의동산교회

유명한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추위와 강풍 때문에 엄청 위험한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데 왜 거길 왜 올라갑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산악인들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태국 같은 관광지에서 가면 돈 내고 악어 입에 머리를 넣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끼리 밑에 깔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돈까지 내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행동이 이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놀이공원에 가서 돈 내고 무서운 놀이 기구 타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고도 납니다.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악어가 깨물어서 응급실에 가고 번지 점프하다가 끈이 풀려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모험심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크기와 종류가 다를 뿐 모두 다 이런 모험심이 있습니다. 이 모험심이 사람들을 위험하지만 짜릿한 일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문명의 발전 뒤에 이런 모험이 있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발명하려 했던 라이트 형제의 모험 정신 때문에 요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일, 별 승산이 없는 일에 뛰어들 모험가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험하는 사람만이 맛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위험한 일을 만나지는 않겠지만 모험하면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모험가들 때문에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험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모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모험은 아주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 놔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일종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들길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짜릿함을 경험하려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모험심 때문에 남의 떡을 훔쳐 먹는 겁니다.

왜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까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피우면 안전할 텐데 괜히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짜릿함, 잘못된 모험 정신이 발동한 것이지요.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모험의 본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에 그 본능을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본능을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기 한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풍랑 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할 텐데 그것을 거부하고 물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릴 때 배 안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요?

어떤 사람은 조마조마하면서 베드로 편이 되어서 응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는 없고 그냥 손에 땀을 쥐면서 "베드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이팅!"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험하는 대신에 모험하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축구 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면서 가슴을 졸입니다. 유명한 등산가가 에베레스트에 고립되었다고 할 때 그냥 마음 속으로 그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직접 뛰어들지는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하는 거지? 그냥 가만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할 텐데, 괜히 저렇게 뛰어들어서 사람들 걱정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그 봐! 베드로! 몇 발짝 못 가고 빠지잖아. 그럴 걸 뭐 하러 뛰어내려? 차라리 그냥 있지. 그러면서 그냥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어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 때문에 중간에 물에 빠졌고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최대한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면, 그리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는 확실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모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건강한 몸과 젊음의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학생 중에서 모험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

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 모험하는 거, 파괴적이고 짜릿한 모험 대신에 거룩한 모험을 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한 모험,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모험을 하느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구도 누리지 못할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모험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신발 끈을 고쳐 매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식[美食]이야기⑧



이진택

교수

호텔조리과

미식여행 여덟 번째 이야기

세계(世界)가 인정한 한국인(韓國人)의 정(情) 김장문화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음식으로 각 가정에서 밑반찬으로서의 사용은 물론 기나긴 겨울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영양 급원 식품으로서 필수적인 음식이다. 특히 늦은 가을 11월경 온 가족, 혹은 가정마다 품앗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정도로 단순히 겨울 음식 그 이상의 한국인의 정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채소를 절여 상용하는 음식은 다른 문화권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처럼 겨울을 앞두고 온 국민이 함께 김치를 만들어 저장해두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김치라는 음식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 하나의 음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모두가 함께 일하고 나누어 먹는다는 농경문화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나눔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농경 생활을 근본으로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해 왔다. 특히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는 하절기에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쉽게 수확할 수 있었으나 채소가 생산되지 않는 겨울에는 수확한 채소를 보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으며 이러한 채소를 보존하기 위해 처음으로 생겨난 방법이 건조법과 소금 절임의 형태인 염장 저장법이었다. 그러나 건조법은 식품의 저장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의 손실이 많이 생기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금을 이용한 염장 절임은 채소 본연의 연하고 아삭함을 유지하면서도 장시간 보존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채소와 어패류를 묶은 농도의 소금에 절이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미생물의 생육은 억제되지만 자가 효소 작용과 호염성균의 발효 작용으로 아미노산과 젖산을 생산하여 우수하고 독특한 맛을 가진 발효가공 식품으로 숙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젓갈과 김치가 만들어지는 기본 과정이다. 이러한 담금 발효과정은 식품가공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진전이며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는 서양의 피클(pickle)이나 독일의 사우어 크라우트(sauerkraut: 양배추 절임), 일본의 찌케모노, 중국의 장아찌 식 김치류 등과 비교할 때 그 결을 달리하는 독특한 한국의 음식문화인 것이다.

김치와 관련된 문헌상의 최초 기록은 약 3000년 전 중국 최초의 시집인 시경(詩經)에 ‘저(菹)’라는 표현으로 ‘오이를 이용한 채소 절임’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C경부터 염장을 이용한 김치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전해주는 일련의 ‘삼국유사’에서의 ‘저해’를 비롯하여 ‘고려사절요’에서도 ‘저(菹)’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고려 후기 이규보가 지은 ‘동국이상국집’ (1241~1251년경)에서도 김치 담그기를 표현하는 ‘염지(鹽漬)’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왕조 성종 12년(1481)에 간행된 ‘두시언해(杜詩謄解)’에서는 원문의 ‘저(菹)’를 ‘디히’로 번역하고 있는데 국어학자들은 이것을 ‘김치’를 뜻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옛말이라고 보고 있다. 소금에 절인 채소에 마늘, 생강 등의 향신료만 섞어서 재워두면 채소의 수분이 빠져나와 채소 자체가 소금물에 가라앉는 침지(沈漬)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침채(沈菜):소금에 절인 채소’라는 명칭이 생겼으면 ‘침채-담채-침채-김치’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편 ‘김장’의 어원은 ‘이조실록(李朝實錄 1409)’의 “태종 9년에 침장고(沈藏庫)를 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침채(沈藏)’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추의 유입은 우리 식생활 특히 김치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고추는 「지봉유설(芝峰類說), 1613」에 ‘고초(苦椒:왜 겨자)’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강목습(本

※ 배추김치 만들기

● 배추김치에서의 삼투압 작용과 숙성원리

배추김치의 제조원리 중 소금의 삼투압 작용은 염분이 배추 속으로 침투함으로써 배추의 절임 현상은 물론 수분 배출, 풋내 제거 및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게 되며 부패를 억제한다. 배추김치의 숙성은 호염성 균의 성장 촉진으로 젖산균을 생성시켜 숙성된다. 김치의 양념 농도가 낮을 경우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 없어 보존성이 나빠질 수 있고 양념 농도가 진할 경우에는 보존성은 증가하나 배추가 질겨지게 된다. 따라서 김치의 맛은 소금의 양과 저장온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재료

통배추, 호령, 무, 찹쌀가루(찹쌀풀), 까나리액젓, 고춧가루(붉은 것), 홍고추, 마늘, 설탕, 양파, 쪽파, 미나리, 새우젓

● 배추 절이기

1. 배추 무게의 동량의 물을 준비한다. 소금(호령)은 배추무게의 10%의 무게로 준비한다.
2. 배추를 절단하여, 배추 무게 동량의 물에 준비한 호령 1/2을 물에 녹여 배추를 적신 후 나머지 ½의 호령을 배추속대에 뿌려 절인 후 절단면이 위로 오게 하여 통에 담는다.
[배추를 자를 때는 밑동에 칼금을 내어 손으로 절단해준다]
3. 통에 담은 후 남은 호령은 물에 녹여 절인 배추에 붓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15~20시간 정도 절인 후 절여지면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둔다. [소금물을 이용해야 골고루 절여진다]

● 양념하기

무는 배추 무게의 10%를 준비하여 채 썬 후, 찹쌀풀을 쑀어 넣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까나리액젓, 새우젓 다진 것으로 양념 후 무를 무친 후 물기를 제거한 배추에 속을 채워 숙성한다. [숙성 기간은 보통 5~15일 정도로 한다.]

● Cooking Advice

- 절인 배추의 염도에 따라 양념의 염도를 조절한다.
- 홍고추, 양파를 갈아 넣으면 시원한 맛을 낼 수 있으나 쉽게 무를 염려가 있다.
- 생새우를 다져 넣거나 굴을 넣으면 풍미를 살릴 수 있다.
- 무가 들어가는 김치는 까나리액젓을 사용하고 무가 들어가지 않는 김치는 멸치액젓을 사용한다.
- 청 갓은 동치미나 백김치 흥 갓은 배추김치에 사용한다.
- 새우젓은 2월[동백젓], 5월[오젓], 6월[육젓], 가을[추젓]이라 부른다.
- 멸치를 15~20%의 소금에 혼합하여 15~20℃로 2~3개월 동안 숙성시킨 것을 멸치젓, 6개월 이상 숙성시킨 것을 멸치액젓이라 한다.
- 김치 효능 : 정장 작용, 항암효과, 피부노화방지, 면역력 증강, 다이어트 효과 등

김치와 관련된 어원의 변천
<div> <div>저(菹) → 디히 → 지히 → 지</div> <div>침채(沈菜) → 담채 → 침채 → 김채 → 김치</div> <div>침장(沈藏) → 김장</div> </div>

草綱目拾遺), 1765년」에 고추가 재배되어 고추장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장을 담그는 시기는 기후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입동(立冬)부터 소설(小雪)에 걸쳐 실시되며 지역에 따라 추운 북쪽 지방은 양념을 적게 하고 국물을 넉넉하게 하여 싱겁고 시원하며 톡 쏘는 탄산수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 반면, 따뜻한 남쪽 지방은 싱거우면 일찍 시어지므로 간을 많이 하고 양념과 젓국을 많이 써서 농후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김치의 재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주재료인 배추나 무, 갓 등 녹색 채소는 저열량 식품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양념으로 쓰이는 마늘, 고추, 생강 등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세포의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화를 억제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숙성된 김치국물 한 숟가락에는 약 1억 마리의 젖산균이 함유되어 있어 새콤한 맛으로 식욕을 억제하여 정장 작용은 물론 변비, 암, 설사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대학교 내 김치연구소의 박건영 교수팀은 10여년간의 연구 결과 김치의 항암효과를 밝혀내어 김치가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우수한 식문화의 유산으로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강식품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김장 문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음식문화임과 동시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더불어 사는 우리 전통 삶의 표현이기도 하다.

행사 안전사고 예방

글 그림: 정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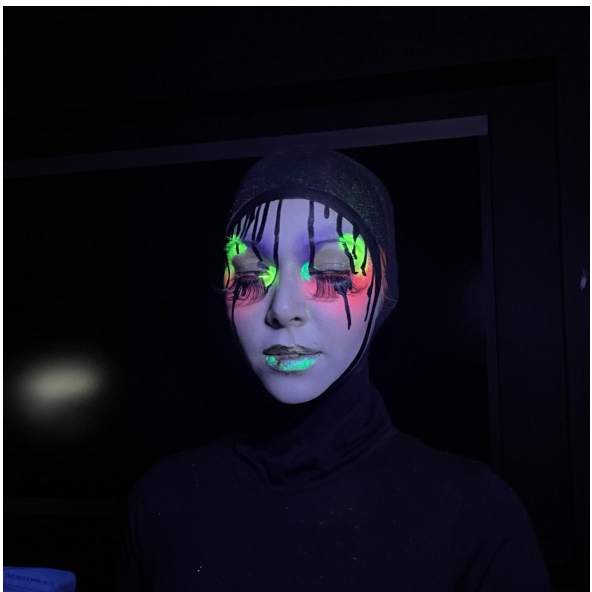


뷰티디자인과 해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초청 세미나



▲뷰티디자인과 제공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학과장 이원경)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해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Felix Shtein을 모시고 메이크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세미나에 초대된 Felix Shtein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세계적인 아트 메이크업 전문가로 작품성이 뛰어나고 뮌헨, 프라하, 토론토, 빈, 도네츠크, 베를린,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리비아 등 30여 개국에서 초청 세미나 및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국제 스타일리스트 협회 심사위원, 유럽 장식 메이크업/바디 아트 챔피언십 심사위원, 월드 바디페인팅 페스티벌 심사위원, 화장품 창업자 등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뷰티디자인과 제공

아틀리에 아누스 세미나는 국제적인 수준의 명품 세미나를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시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이제는 전문 국제 메이크업 세미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신 메이크업 기법들을 중심으로 서로 상반된 성향을 가진 세계의 유명 아티스트를 초빙하여 콤보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뷰티디

인 학생들은 세미나에 참여 후 “형광 파우더를 이용한 메이크업은 어려울 줄 알았는데 펠릭스 슈타인 선생님께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 특강이었습니다”, “얼굴에 표현 후 불을 끄고 야광으로 표현된 모습을 보며 신기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좋습니다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특강을 듣고 새로운 메이크업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항상 뷰티 메이크업을 위주로 자주 배웠었는데 이번 세미나와 특강을 들으면서 아트 메이크업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은 메이크업 스타일을 배운 것 같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결연업체 ‘아틀리에 뷰티아카데미’와 진행되었다. 아쉽게도 2018년, 2019년에 이어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대면 모임이 허용되면서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재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이화순 교수는 “뷰티디자인과는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만남으로써 학생들이 창의력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하



▲아틀리에 아누스 세미나

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인 수준의 뷰티 아티스트를 육성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뷰티디자인과는 23년도부터 뷰티디자인학부로 메이크업 전공과 헤어디자인전공 이렇게 2가지의 전공으로 세분화하여 선발하고 K뷰티를 선도하는 인성과 감각을 갖춘 뷰티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정기자 김우준

학보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다

교내 소식들과 다양한 기사들을 보도하는 신안산대학교 학보사에 새로운 수습기자들이 임명되었다. 학보사 주임이신 김연정 교수님은 교내 목욕관 2층 학보사실에서 새로운 수습기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임명식을 진행하였다. 2022년 새로 개설된 연예매체지문트과의 김정민, 신일, 이수정 학생과 멀티미디어컨텐츠과의 권유진, 박서진 학생, 호텔조리과의 정상협 학생, 웹툰출판미디어과의 정서운 학생 총 7명의 학생이 수습기자로 학보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 출처: 신안산대학교 학보사

김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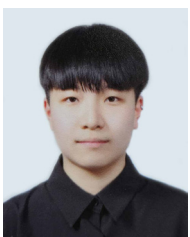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수습기자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보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신일



올 초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게 된 동아리가 학보사인 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막막할 줄 알았으나 동아리 선배님들이 친절히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어려움 없이 동아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습기자에서 곧 정기자가 될 것이니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수정



학보사의 수습기자로써 정기자 선배님들과 동료 기자들에게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학내 여러 소식과 사회의 여러 이슈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정서운



학보사의 만화를 넣는 수습기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화를 넣는 것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점차 익숙해져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밌고 예쁜 그림으로 만화를 넣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권유진



처음 학보사에 들어왔을 땐 글을 잘 쓰지 못해 제대로 된 기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학보사 선배님들과 학우들의 도움으로 글 쓰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 활동을 하면서 신문이 발간되는 과정 등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보사의 기자로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박서진



학교 내의 모습이나 행사 등을 포함한 많은 일들과 사회적인 이슈를 담아내는 기사를 쓰는 학보사의 수습기자가 되어서 뜻깊고 기자라는 이름에 사명감을 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수습기자 이수정

학보사를 떠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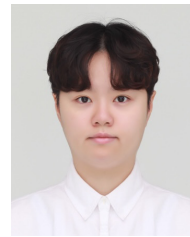
곧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학보사의 많은 기사를 책임지고 있던 정기자들이 졸업을 하며 학보사를 떠나게 된다. 아쉽게도 그동안 학보사 운영을 위해 열심히 하던 편집장 전효빈 학생과 부편집장 김성진 학생이 모두 떠나게 되면서 지난 10월 새롭게 차기 편집장과 부편집장을 임명하였다.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기존의 수습기자로 활동하던 이수정, 박서진 학생이 발탁되었으며 총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성연 학생이 맡기로 결정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정기자들이 신안산대학교 학보사를 떠나면서 함께 이끌어나갔던 시간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그동안의 활동했던 소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 편집장 전효빈



교수님과 선배들의 추천으로 하게 된 편집장이라는 자리가 처음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같은 기자친구들의 도움과 교수님의 도움으로 편집장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후배기자들 덕에 걱정 없이 신안산대학교 학보사를 떠날 수 있었고, 차기 편집장, 부편집장, 총무에게 학보사를 잘 부탁드리며 부족했던 저를 도와준 기자분들께 감사합니다.

✓ 정기자 전예원



제가 학보사 정기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은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이고 다양한 이슈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료, 수습기자들과 함께 어울려 회의와 모임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러 목소리를 들으며 고찰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 조금 힘든 점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저에게 학보사는 그 자체로 뜻 깊은 추억이 되었고 어떠한 것에 깊게 사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남은 수습기자 분들에게도 학보사에서의 다양하고 값진 활동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함께 학보사를 떠나는 정기자 분들은 두 해 동안 고생했다고 글로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편집장 김성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학보사를 들어와서 다양한 학교 소식들을 더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정기자 김우준



저는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정말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학보사를 들어오기 전에 글을 잘 쓰지 못해 걱정이었으나 학보사에서 글을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고 학교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의 근황은 어떤지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인 2022년에 이어 내년에도 학보사에서 총무를 맡게 되는 민성연 학생 또한 앞으로의 다짐과 생각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학교생활과 학보사 활동을 끝마치며 아쉬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자들에게 응원을 전하고 이제는 수습기자였던 이수정, 박서진, 권유진, 김정민, 신일이 정기자로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앞으로의 학보사의 기사와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총무 민성연



안녕하세요, 23년도에도 총무를 맡은 민성연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총무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학보사를 운영해 나가는 기자분들이 믿어주신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학보사를 운영해간 편집장님과 정기자분들에게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기자분들과 함께 학보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활동할 수는 없겠지만 학보사를 이어나갈 새로운 정기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습기자 박서진



호텔조리제빵과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다



신안산대학교 호텔조리제빵과는 지난 11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사회과학관 2층 로비에서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호텔조리제빵과 학생들이 그간 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창작 레시피, 조리 등 자신의 요리를 직접 만들어 나라와 전공별로 전시되었다.

이번 호텔조리제빵과 졸업전시회에는 부시드 노엘 케이크, 글라스주 케이크, 크로캉부슈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와 디저트들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호텔조리제빵과는 전시회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도 함께 운영했다.

올해 레스토랑에는 단호박 수프와 메인메뉴로 라자냐와 감바스 파스타, 디저트로 유자 무스케이크가 판매되었다.

2학년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실력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을 감상하고, 호텔조리제빵과 학생회가 운영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이번 졸업작품 전시회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학업을 병행하며 틈틈이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호텔조리제빵과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수습기자 김정민



▲ 호텔조리제빵과 학생들의 졸업전시 작품들



허은빈 반려동물과 학회장

반려동물과 학회장을 만나다

반려동물과는 2022년도에 생긴 신설과이다. 반려동물과에 대해 궁금해할 학생들을 위해 반려동물과 학회장 허은빈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Q. 반려동물과에 오면 좋은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반려견과 함께 강의를 듣고 훈련하며 많은 반려견이 한 곳에 모이기에 내 반려견의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제일 기억에 남은 수업은 무엇인가요?

A. 반려견의 행동교정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많은 반려견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과를 나오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반려동물과를 나오면 수의사,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행정 교정사 등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에 오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저희 반려동물과는 반려견과 함께 등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는 많은 학생들 환영입니다! 일단 오고 생각하세요!

수습기자 김정민



연예매니지먼트와 단합을 위한 체육 대회를 가시다



▲ 학과 체육 대회를 마친 연예매니지먼트과 단체 사진

신안산대학교 연예매니지먼트과는 학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학과 체육 대회를 지난 11월 2일 수요일 본교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 대회는 학과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체육 대회 행사였다. 체육 대회는 연예매니지먼트과 임원들의 준비로 이루어졌으며, 1학년 학생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학과 체육 대회는 피구, 판 뒤집기, 배드민턴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하여 연예매니지먼트과 교수님들이 포함된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또한 우승 팀에게는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가능한 기프트 카드를 전달하며 시상하였다. 이번 연예매니지먼트과 체육 대회를 준비한 연예매니지먼트과 학회장 형성운 학생은 “과의 단합력을 높이고 학우 간 친화력 향상과 학과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위해 과 체육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소 교류가 없던 학우들도 같은 팀이 되어서 소통하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고, 모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 대회를 끝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고 싶습니다”라며 체육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학과에서 처음 진행된 이번 체육 대회는 모든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수습기자 김정민

뷰티디자인과 졸업작품 전시회



▲ 뷰티디자인과 졸업작품

▲ 뷰티디자인과 졸업작품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에서는 지난 11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 3일간 사회과학관 4층에서 제22회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뷰티디자인과 졸업전시회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메이크업&네일 실습 작품들이 전시되어, 이전과는 사뭇 다르면서도 매우 다채롭고 신선한 메이크업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뷰티디자인과에서는 헤어 스타일링,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피부 관리 등 다양한 최신 뷰티 트렌드의 맞춤형 교과 과정을 운영하여 K-뷰티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뽐낼 수 있었던 소중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수습기자 이수정

2022 신안산대학교 신설학과 소개

올해 2022년부터 신안산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신설학과를 운영한다. 신설학과는 스마트패키징과, 소방안전관리과, 반려동물과, 실용댄스과, 스포츠지도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웹툰출판미디어과가 있으며 각 학과마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2022년부터 주어진다.

수습기자 신일

스마트패키징과



■전공소개

스마트패키징과는 자동포장기계 설비 운용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에이스기계(주) (협력사 포함)와 졸업생 100% 취업 약정을 맺은 계약학과입니다. 2학년 2학기부터 취업하여 연봉 5천만원 대를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패키지 디자인에서부터 포장 기계 운용과 관련된 기계, 전기, 전자를 폭넓게 배워 자동포장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취득자격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오토캐드(ATC), 인쇄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진출직업군

자동포장설비 오퍼레이터, 패키징 디자이너,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제조업체 포장 R&D 및 관리자, 생활용품 제조업체 포장 R&D 및 관리자, 기계 설비 관리자, 전기, 전자, 자동차 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체 포장 R&D 및 관리자



▲ 스마트패키징과 수업모습과 에이스기계(주)와 협약식(▲출처:본교 블로그)

반려동물과



■학과소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유능한 반려동물 전문가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에서는 반려동물 미용분야, 반려동물 행동교정분야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일입니다. 인간과 반려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반려동물 문화를 꿈꾸는 학생들은 신안산대학교 반려동물과에서 그 꿈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취득자격

동물보건사(수의테크니션/동물간호) :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 간호, 행정지원
반려동물 미용사(Pet stylist) : 반려동물 털의 미용과 청결 관리
반려동물 핸들러(Handler) : 도그쇼에 참가하

는 반려견을 전문적으로 관리

반려동물 훈련사(Dog instructor) : 반려동물 교육, 훈련

반려동물관리사(Pet master) : 반려동물의 모든 것을 관리

그 외에 반려동물유치원교육사, 동물병원코디네이터, 애견용품디자이너, 반려동물베이커리지도사, 반려동물아로마전문가,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펫티터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진출직업군

반려동물미용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반려동물훈련사,반려동물핸들러, 반려동물유치원교육사, 동물행동심리상담사, 반려동물관리사, 동물구조관리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애견브리더관리사, 반려동물재활트레이너, 애견용품디자이너, 반려동물베이커리지도사, 유기동물관리사, 수의테크니션, 반려동물아로마전문가, 반려동물수제간식전문가

소방안전관리과



■학과소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몸소 실무를 익힘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소방 및 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인 소방 및 안전 분야에서 학생 개개인이 전문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준비 및 대기업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격

소방공무원,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진출직업군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계기술자, 소방공학시험원, 소방시공기술자, 소방설비공사감리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소방공무원(특별채용 가능), 소방관 등



▲ 소방안전관리과 수업모습과 협약식(▲출처:본교 블로그)

실용댄스과



■학과소개

현대적인 댄스의 표현원리를 기초로 신체 움직임 테크닉 습득과 함께 작품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진 커리큘럼과 각 전공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멘토링 및 업계에서 공인된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실용무용 직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체계화 된 교육과정과 환경으로 한류문화 및 공연, 미디어, 대중예술에 공헌할 수 있는 실용무용 전문인을 양

성 합니다.

■취득자격

문화예술교육사, 실기교사, 방과 후 지도사, 댄스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필라테스, 요가 자격증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진출직업군

안무가, 댄스강사, 댄스트레이너, 스트리트댄스 팀 단원, K-POP 방송댄스 백업댄서, 무용단원, 댄스디렉터, 공연기획자, 문화센터 강사, 뮤지컬배우, SNS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2022 신안산대학교 신설학과 소개

스포츠지도과



■학과소개

현대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스포츠 문화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고령화에 따른 실버케어시스템이나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스포츠 시설,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전문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스포츠 지도자가 필요한 만큼 스포츠지도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지도과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스포츠 현장체험과 실전 경험을 중심으로 이론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스포츠 지도자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출직업군

생활체육지도자(특수(노인, 장애인), 성인, 유소년 등) 방과 후 학교체육(스포츠강사), 전문 스포츠지도자, GX(Group Exercise)지도자(댄스, 스피닝, 필라테스, 요가 등), 유아체육지도자, 스포츠클럽 지도자, 수상안전요원, 경기기록원, 종목별 심판, 태권도 사범, 협회 및 프로구단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관리자, 피트니스 시설관리 및 운영, 체육 관련 공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각 시도별 체육회 등), 공공 생활스포츠 시설관리 및 운영 등방송영화기획 및 제작자, 음반기획 및 제작자, 캐스팅디렉터, 엔터테인먼트사 사무직, 문화관광과(부)공무직, 일반 사무직

연예매니지먼트과



■학과소개

연예매니지먼트과는 연예인들의 연예/방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계획,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매니저와 연예인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일하는 사무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연예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조하고, 신인 인재를 발굴하며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획사의 매니지먼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연예인,



PD, 기획사 대표 등의 교수진들이 연예산업 전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진출직업군

현장(로드)매니저, 치프매니저, 제작매니저, 팬매니저, 홍보매니저, 공연기획자, 문화콘텐츠개발자, 방송영화기획 및 제작자, 음반기획 및 제작자, 캐스팅디렉터, 엔터테인먼트사 사무직, 문화관광과(부)공무직, 일반 사무직

웹툰출판미디어과

■학과소개

문화콘텐츠 산업은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며 그중에서도 인터넷 환경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인 웹툰과 웹소설은 대중문화콘텐츠 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가정책에 부흥하고 웹툰화 콘텐츠 관련 산업체의 기술인력 수급에 대응하는 전문 직업인 양성하기 위하여 웹툰출판미디어과에서는 웹툰(드로잉과 스토리), 출판(디지털출판편집, eBook제작), 미디어(인 미디어 기획 및 제작)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지식과 재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취득자격

문화예술교육사2급 캘리그래피2급, 전자출판



▲ 웹툰출판미디어과 수업모습 (출처:본교 블로그)

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디지털만화전문가, 아동미술지도사, 컨셉아트디자인전문가, 애니메이션기획전문가, 웹디자인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등

■진출직업군

웹툰그림작가, 웹툰스토리작가, 웹툰PD, 만화콘텐츠 기획자,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교육자, 웹소설 삽화작가, 출판작가, 콘티 구성작가, 디지털출판 편집디자인, 영화 스토리보드작가, 애니메이션 제작자, 이모티콘 디자이너, eBook편집 및 작가, 1인 크리에이터, 카드뉴스 제작자, 미디어아트 제작자, 자치단체 웹툰 프로그램 강사,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웹툰 수업 교사



▲ 스포츠지도과 수업모습과 협약식 (출처:본교 블로그)

신안산대학교 야구부 초대감독 강태원

본교는 지난 5월 2023년도 신안산대학교 야구부 창단을 위한 선포식과 감독 임용식을 가졌다.

감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KIA 타이거즈의 스카우트를 맡은 강태원 감독이 임용되었다. 야구 은퇴를 앞둔 그에게 소속팀의 투수 코치였던 이상윤 코치가 팀의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스카우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

야구를 놓을 수 없었던 강태원 감독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고, “은퇴 이후 야구를 그만둘지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막상 놓으려 하니 놓아지지 않았다. 미련이 남을 때쯤 이상윤 코치의 스카우트 제의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고 전했다.

그렇게 신인 선수의 스카우트를 맡은 그는 현재 프로야구를 이끌고 있는 김선빈, 양현종 등 스타 선수를 발굴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는 스카우트 시절 김선빈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구단 수뇌부를 설득했던 때가 가장 기억이 난다고 전하며 “김선빈 선수가 키가 작아 야구를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타격과 수비, 주루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구단 수뇌부에게 그 선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그때의 설득으로 현재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카우트로 성공을 거둔 그가 선택한 길은 아마추어 야구의 감독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학 야구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스카우트나 코치를 하면서 선발되지 못해 대학 야구로 간 선수들을 많이 봤지만 그들이 가진 야구에 대한 열정은 뽑힌 선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학 야구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다. 야구 선배로서 그들을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전하였고, 이런 그에게 본교는 야구부 운영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그의 장기적인 안목에 흔쾌히 야구부 창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신안산대의 목표와 대학 야구 관심 제고라는 내 목표가 만나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야구부 창단을 결정할 수 있어 기뻐다”며 “신안산대 야구부를 통해 안산 지역의 야구 붐을 일으키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내년 감독 데뷔를 앞둔 그는 현재 이곳저곳을 다니며 야구부 창단 준비를 위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힘들어도 처음 맡는 감독이라는 책임감에 쉽게 준비하는 그가



▲ 본교 야구부 강태원 초대감독 (한국대학신문 김한울기자)

생각하는 신안산대 야구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기회’와 ‘소통’이었다.

그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요기 베라의 말처럼 신안산대 야구부는 안산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부로서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선수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전해나갈 신안산대 야구부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정기자 민성연

2022학년도 여름학기 한국어교육과정 수료식



▲ 2022학년도 여름학기 한국어교육과정 수료식 사진

지난 8월 본교 국제교육관 시청각실에서 국제교류협력원의 주관으로 베트남 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학기 한국어 교육과정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수료식의 진행은 국제교류협력원의 김기동 과장이 진행하였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장학금을 전달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어학생들을 대표하여 소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응옌 쏘 남 학생은 “베트남의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전하며 말을 시작하였다. 이 학생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베트남 학생들은 언어장벽과 어려움 때문에 의사소통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의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 제 한국어가 점점 좋



▲ 학생들을 대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의 사진

아져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특히 저희 학교는 한국어 공부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고, 덕분에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베트남 어학생들을 대표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료식을 주관한 국제교류협력원은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 대학의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외국 대학과의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 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대학과 자매결연 및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한국어 과정, 선교 지원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자 민성연

기성용 축구단 발대식



▲기성용 축구단 발대식 현수막 사진

지난 2022년 8월 23일 신안산대학교에서 국제구호개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FC 서울 소속인 기성용 축구 선수와 함께 ‘기성용 Underswings(언더 스윙스) 엘리트 축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기성용 Underswings 엘리트 축구단’은 어려운 상황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축구 유망주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모집된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되었으며, KFA 축구사랑 나눔 재단의 협조를 통해 선출했다. 축구단은 총 10억 원의 규모로 5년 동안 운영되며 매년 축구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훈련비와 전지훈련 참여비, 축구 용품 구입비 등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특히 재활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치료비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축구단 발대식에는 월드비전 조명원 회장, KFA 축구사랑 나눔 재단 조병득 이사장, 기성용 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총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 발대식에선 조명원 회장의 환영사와 축구사랑 나눔 재단 조병득 이사장의 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성용 선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이어졌다. 환영사에서 조명원 회장은 “이번 기성용 Underswings 엘리트 축구단 발대식은 재능이 있는 아동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바쁜 시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 기성용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환영사 이후 기성용 선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이 시간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기성용 선수가 현실적인 조언으로 답해주는 시간이었다. 발대식 이후 2부는 기성용 선수와 함께하는 미니게임이 시작되었다. 기성용 선수는 미니게임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일일 코치로 리프팅, 드리블 릴레이 등 멘토링 시간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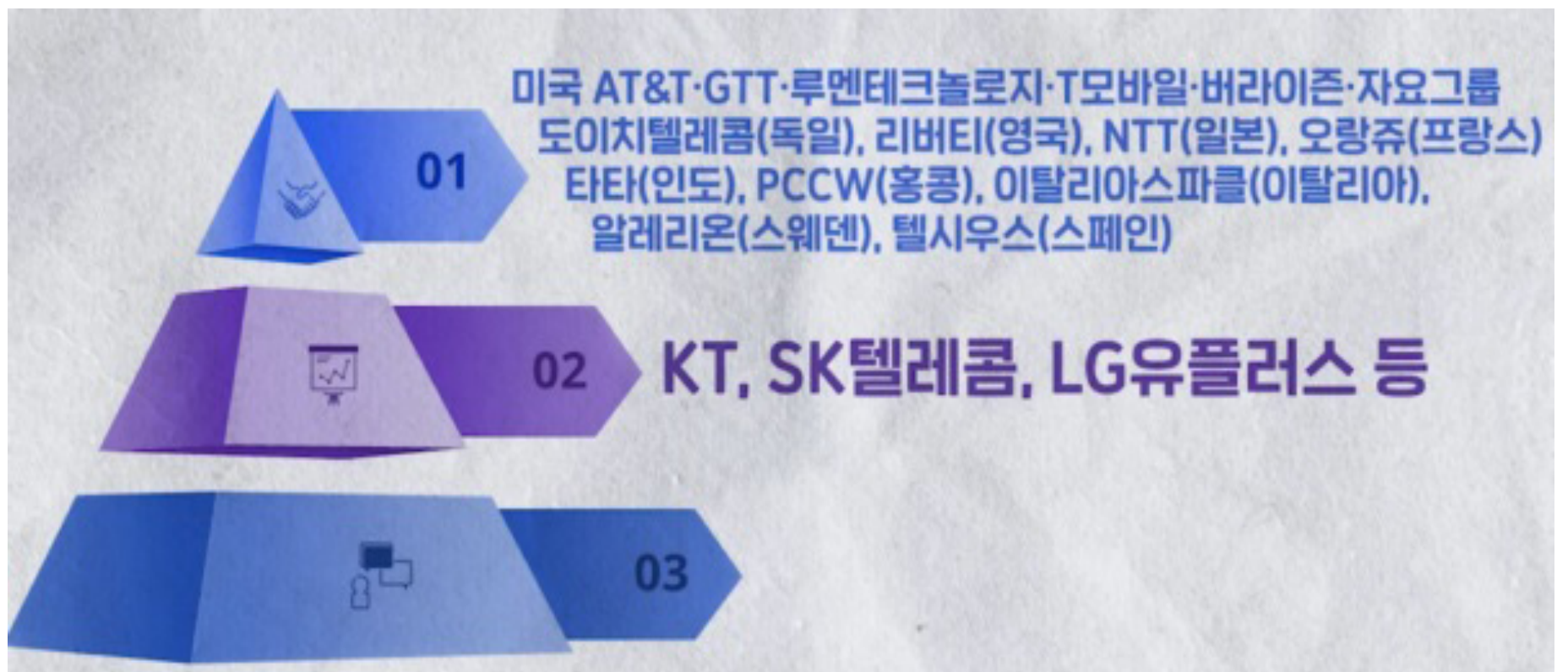
기성용 선수는 “오래전부터 꿈꿔오고 계획했던 일이 진행돼 뿌듯합니다. 오늘은 저보

다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축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어려움을 이겨내고 각자 본인의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Underswings 엘리트 축구단 대표 최다연 학생(14)은 “축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기성용 선수님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꿈만 같았어요.”라며 “제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만큼 꿈에 더욱 매진하고 제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라고 전했다.

수습기자 권유진

망 사용료



최근 우리나라 ISP(SK, KT, LG U+)가 해외 CP(컨텐츠 공급자)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에픽게임즈, 트위치 등 망 사용료 주장을 하며 소송을 건 사건들이 있다.

2022년 현재 입법 논의 및 이슈가 되고 있는 망 사용료는 접속이 아닌 회선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선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료를 지불하면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에 망에 '접속'시켜주는 대가로 요금을 정산해왔다. 이용자는 통신사와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와 약정한 대역폭 내에서는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하는 용량이 많다고 비용을

더 지불하진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유선인터넷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접속료를 의미한다.

입법 논의되는 망 사용료란 개념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접속료를 지불할 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진 않는다. 이는 2003년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팀 우(Tim Wu)교수가 통신 시장의 규제 원칙으로 제시한 망 중립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 서로 연결된 공유자산이지,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CP는 미국 ISP(AT&T, Verizon), 한국 CP는 한국 ISP(KT, SKT, LG U+)에 접속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서 ISP는 티어1부터 티어3까지 존

재하는데 낮은 티어가 높은 티어의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트래픽이 반드시 한 쪽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패권국의 소수 ISP만 티어1이고 우리나라 ISP(KT, SKT, LG U+)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티어2 IS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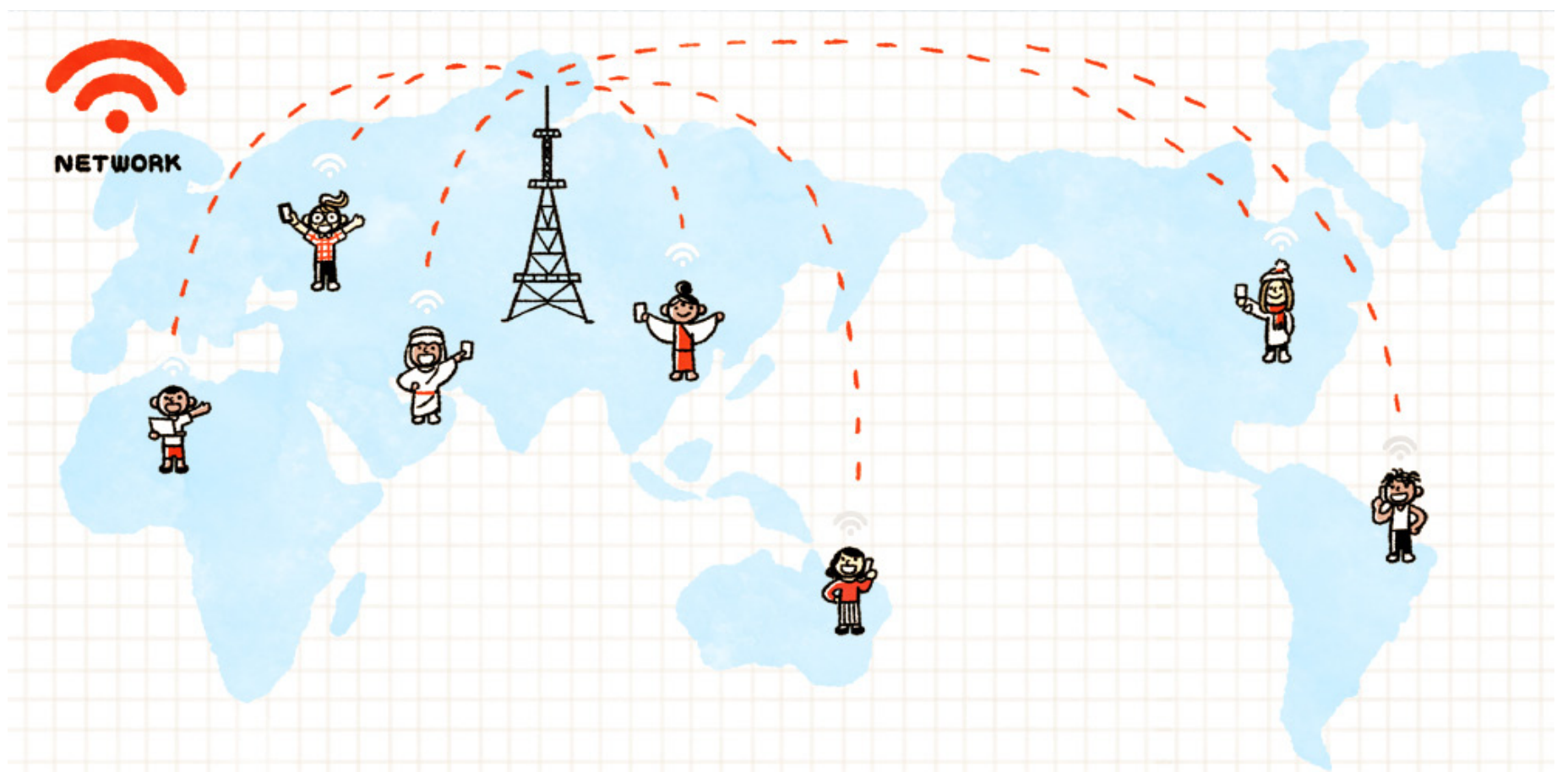
현재까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캐시 서버를 한국에 만들어줘 티어1 망을 덜 사용하여 비용이 절감되기에 망 사용료를 지불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고, 디즈니+, apple tv 같은 경우 캐시서버를 따로 해주지 않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마존의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 tv도 캐시서버가 없기에 망 사용료로 500억을 납부해왔지만 최근 트래픽으로

는 900억까지 납부를 하라는 것에 트위치 코리아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춘 것이다. 한국의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도 이론적으로는 900억의 망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리드 시스템으로 150억까지 줄여 납부하고 있다.

쉽게 비유하자면, 놀이공원에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신나게 놀고 집을 돌아가는 길에 놀이공원 관계자가 “놀이공원을 너무 많이 이용해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이용권(접속료)을 이미 지불했지만 다른 손님들도 너무 많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트래픽에 따른 요금) 더 지불하라는 것과 똑같기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부편집장 김성진



김민성의 미국 기행(奇行)기

김민성
본교 멀티미디어콘텐츠과 22년 졸업생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기행 (1)



불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난 한국귀국을 위해 PCR 테스트장으로 향했다. 이곳의 검사장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들은 워낙 유명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잠을 자고 일어난 노숙인들이 자리를 치우고 일어나 바로 앞 건물로 가고 있었다. 쪽 지켜보니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같은 곳이 바로 앞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차들이 오며 방역복을 입은 분들이 내려 호스와 소독약을 가지고 노숙인들로 인해 밤새 더러워진 거리에 고압호스로 물을 뿌리고 소독약을 뿌리며 청소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미국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테스트를 위한 부스 제작이 시작되었고, 한참을 기다린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를 받은 후 나는 곧장 파월스트리트 역으로 향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는 매우 특별한 이동 수단이 있는데 바로 케이블카라는 트램 같은 교통수단이었다. 또 한참을 기다려 케이블카를 타고 이번엔 페리 빌딩으로 향했다. 이곳엔 블루보틀이라는 유명커피숍의 본점이 있는 곳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난 카페라테를 하나 주문하고 건물 뒤편으로 이동해 바다를 보며 커피를 한잔 마셨다.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상당히 별로였다. 커피를 마시고 난 해안가를 따라 쪽 걸었다. 피어23을 지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한 노숙인

이 다가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빨리 꺼지라는 것이었다. 난 당황하며 그분을 진정시키고 너무 무서워서 빠르게 도망쳤다. 땀이 났다 보니 유명 관광지인 피어39에 도착했다. 이곳은 많은 기념품 가게와 조그마한 놀이공원, 알카트라즈 섬을 가기 위한 선착장 등이 있다. 아쉽게도 알카트라즈 섬으로 가는 배는 예약이 꽉 차 가지 못하게 되었다. 무계획의 단점이 바로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펄 대신 닭이라고 난 다음 날 출발 예정인 알카트라즈 섬 주변과 금문교를 지나는 크루즈를 예약했다. 갑자기 대충 짜 놓은 계획에 차질이 생겨, 난 주변의 피셔맨스와프를 잠시 방문하기로 했다. 선착

장을 지나 미군 함선을 구경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해안을 따라 쪽 걸었다. 걷다가 유명 초콜릿 판매점인 길라텔리 판매점이 보여 초콜릿을 구매하여 조금씩 먹으며 또 계속 걷고 걸었다. 계속 가다 보니 이번엔 금문교가 보였다. 평소 영화에서 금문교가 많이 나오기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혼자만의 여행의 단점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없어 계속 지켜보다가 한 연인에게 부탁하였고, 내 선택은 탁월했다. 그렇게 멋진 사진을 건지고 너무 걸었던 탓일까 너무 피곤하여 난 주변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기행 (2)

전날 너무 무리했기에 이번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리라 다짐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롬바드가에 도착했다. 이 케이블카는 정말 특이하게도 문이 없어 뛰어내리고 대충 매달려서 타는 구조이다. 난 롬바드가에 뛰어내렸고,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온 S자로 된 가파른 언덕을 걸으며 감성을 느끼고, 다시 케이블카에 타 길라텔리 박물관에 도착했다. 박물관은 생각보다 별것 없었고, 그냥 초콜릿을 한 개 구매하여 해변에 앉아 잠시 여유를 즐겼다. 귀여운 아이들과 온 일본인 가족들을 보며 나도 가족과 왔으면 재미있었겠다는 생각이 든 동시에 점심시간임을 알게 되었고, 역시

나 주문이 편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빠르게 점심을 해결하고 예약했던 크루즈를 타기 위해 피어39의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피어39에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다사자이다. 마침 선착장 바로 옆이 바다사자가 올라오는 곳이었고, 출발 전까지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크루즈에 탑승하고 시원함을 넘어 매서운 칼바람을 가르며 알카트라즈 섬과 금문교를 돌며 다시 선착장에 도착했다. 도착 후 기념품을 사기 위해 피어39의 기념품 가게에 들러 기념품을 구매하고 이곳의 유명한 음식인 브레드볼 클램프우더를 먹는데 가게에 비둘기가 들어와 주방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도 반응하



지 않았다. 신기하여 영상으로 남겨놓은 기록이 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종점으로 향해 갔고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앞에

앉아있던 외국인 관광객과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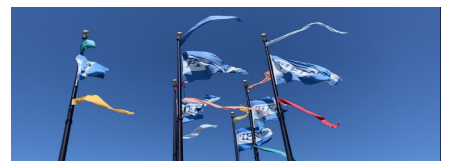
한국으로의 귀국과 무시무시한 자가격리



8월 12일 귀국 날이 밝았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마지막으로 거리를 보고 나 혼자만의 작별 인

사를 했다. 왔던 그대로 다시 바트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인천행 비행기를 탔다. 미국을 올 때와는

다르게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 가내식사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잠을 자고 눈을 뜨니 곧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라는 기내 방송이 들렸다. 공항에 도착한 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출국보다 더 철저한 입국을 위한 절차가 있었다. 한국 입국 3일 전 받은 코로나 음성확인서와 세관신고서, 물품 확인, 엠 설치, 문진표 등등 엄청나게 많은 바리케이드와 절차를 다 거치고 나니 검역확인증이라는 종이 한 장을 받고 드디어 입구 쪽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집으로 가려면 전용 방역 버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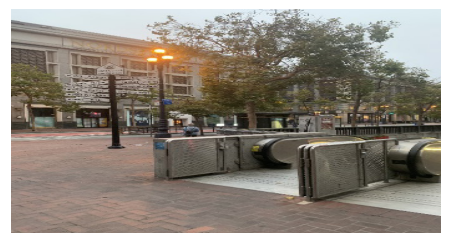


택시를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 방역 버스를 선택했고, 공항에서 대기 후 버스를 타고 구청에 도착해 구청에서 준비해주신 구급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며, 3주간의 미국 여행이 끝나면서 2주간의 자가격리라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기행(奇行)과 기행(紀行)

이 여행 수필은 멀티미디어학과와 안동찬 교수님의 권유로 막연하게 시작하였지만 쓰다 보니 잠시 있었던 여행의 추억들을 꺼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고, 다시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여행기는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기에 지나간 기억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부분

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어휘력과 필력으로 최대한 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분명 아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현재 일상을 벗어나 저와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재밌게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alloween: An Itaewon Tragedy

교양과 엄혁 교수

The incident in Itaewon is a national tragedy. Once again, so many of our country's hopeful futures have passed away in such a terrible manner. The last was the Sewol ferry acciden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ndemic so many of our youth wanted to go out and have a good time without any social distance measures. Halloween was a great event to dress up in a costume and to let go and have fun. On October 29 at 10:10 pm, when so many people were crowded in a very small alleyway and started to squeeze together so tight that people could not breathe. Now, 158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because of this. This is a national tragedy.

How did Halloween become so popular in Korea? Why does the idea of wearing a costume on Halloween seem so appealing to so many of your young people? The simple answer is this: English. English is the reason why Halloween has become so popular, and it is the underlying reason why so many people died on that disastrous day.

First, when we learn a language, the culture and social norms are transferred to the learners. The best example I can give is the song, "Gangnam Style" from Psy. It is in the top 10 most watched videos on Youtube. It has around 4.5 billion views. The song makes fun of the culture of the rich who live in Gangnam. In the video, it exposes the ridiculous lifestyles of rich people which resonate with similar habits of the rich in other countries. Because of this song, Gangnam Station is a tourist attraction for foreigners to experience the phenomenon of the "Gangnam Style." Furthermore, not only are foreign viewers learning about Gangnam, but more importantly, they are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Now, because of K-pop, the Korean culture and Korean cuisine's popularity is at its all-time peak. When I was young, Kimchi was disgusting smelly food that foreigners despised. Now, they cannot get enough of it with its healthy benefits. Michelin star chefs are fusing, learning, and teaching Korean techniques throughout the world. Even Gordon Ramsey, who has a restaurant in Lotte Tower that sells hamburgers for 140,000 won, is incorporating Korean dishes at his high class restaurants around the world. As popular as the Korean culture is around the world, how did Halloween become so popular in Korea? Well, the Halloween culture came to Korea after the Korean war when the US soldiers were stationed in Korea. Halloween was then only celebrated with the US soldiers and their family stationed in Korea. Then Halloween fused out into Itaewon bars to attract their military customers. This is how Halloween started in Itaewon.

After Korea overcam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English boom began. Thousands of foreign teachers came to Korea to teach in academie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is when Korean students started to learn about Halloween and the idea of receiving candy for FREE! Most students could not overcome the idea of receiving candy by saying, "Trick or treat." This is an experience everyone wanted to try. Then, every Halloween, students would have mini Halloween parties at school, academy and at home (for families who have lived overseas) but cannot experience the culture of trick or treating. Slowly, as these students grew up, every Halloween, the cultural idea of Halloween was reinforced in their minds. For some lucky students who studied overseas, they experienced the true culture of Halloween. Some enjoy it very much and others do not. More importantly, they personally experience the Halloween culture and spread their experience with their friends and teachers. Now, those young children that did not experience Halloween but only learned it now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real Halloween culture. However, due to COVID restrictions, these adults could not experience this phenomenon for a few years. This pent-up demand grew even more when these bars, clubs, and restaurants were promoting these Halloween parties. This is why the crowds in Itaewon were as big as it was.

Second, if you go to Itaewon on a Saturday night around 6 pm, the crowds are always big. These alleyways are always jam packed. It is difficult to move around on a normal Saturday night. It is not until around 10:30 when the crowd starts to wind down. Most people need to take the subway or bus home before it closes for the night. Thus, these crowds were not unusual for Itaewon. Koreans are used to these types of crowds when they go to Gangnam Station, Myeong-dong, and other popular places around the city. Also, taking the subway during rush hours, standing on the platform in the subway station is just as crowded. So, these crowded places were not strange for these young people. They see this type of crowd every day. So what went wrong to them?

These young people were curious to experience the Halloween culture which was reinforced into their consciousness from a very young age by learning a second language. When we learn English, we cannot help but to be curious about the culture and tradition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language. Now, new learners of English may not learn about Halloween any more, or they will learn about its tragic history in Itaewon. However, I hope new learners still learn about Halloween and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할로윈: 이태원의 비극

번역 강은정

이태원 사건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가 너무나 끔찍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외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했습니다. 할로윈은 의상을 입고 일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행사였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10분, 아주 좁은 골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끼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현재까지 158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할로윈이 한국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되었나요? 할로윈에 의상을 입는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간단한 대답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할로윈이 그토록 인기를 끌게 된 이유이고, 그 비참한 날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 학습자에게 전이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그것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조회수는 약 45억 회입니다. 그 노래는 강남에 사는 부자들의 문화를 풍자한 곡입니다. 영상에서는 다른 나라 부자들의 비슷한 습관을 떠올리게 하는 부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생활 방식을 폭로합니다. 이 노래 때문에 강남역은 외국인들이 '강남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시청자들은 강남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K-pop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한식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치는 외국인들이 경멸하는 역겨운 냄새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건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술을 융합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롯데타워에 14만원짜리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고든 램피조차 세계 각국의 고급 레스토랑에 한식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처럼, 할로윈은 어떻게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요? 할로윈 문화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당시 할로윈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그 가족들과만 기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할로윈은 이태원 바에 퍼져 군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이것이 이태원의 할로윈은 시작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영어 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인 교사들이 학원, 초중고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학생들이 할로윈과 사탕을 무료로 받는다는 생각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때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Trick or treat"이라고 말하면서 사탕을 받는다는 생각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시도하고 싶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로윈 때마다 학생들은 학교, 학원, 가정(해외 거주 가족 대상)에서 미니 할로윈 파티를 열지만 Trick or Treat 문화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이 학생들이 자라면서 할로윈마다 할로윈에 대한 문화적 생각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강화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운 좋은 일부 학생들은 할로윈의 진정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매우 즐기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로윈 문화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그 경험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할로윈을 경험하지 않고 배우기만 했던 어린 아이들이 진정한 할로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OVID 제한으로 인해 이 성인들은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억눌린 수요는 이러한 바, 클럽 및 레스토랑이 이러한 할로윈 파티를 홍보할 때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태원에 인파가 그만큼 많았던 이유입니다.

둘째, 토요일 저녁 6시쯤 이태원에 가면 항상 인파가 붐빕니다. 이 골목길은 항상 붐빕니다. 평범한 토요일 밤에 돌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군중이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은 약 10:30이 되어서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문을 닫기 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만큼 이태원의 인파는 예상롭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강남역, 명동 등 도심 곳곳의 인기 있는 장소에 갈 때 이런 인파에 익숙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 있는 것도 그만큼 붐빕니다. 그래서 이 붐비는 장소는 이 젊은이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런 유형의 군중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들에게 잘못되었을까요?

이러한 젊은이들은 제2외국어를 배우면서 매우 어린 나이부터 그들의 의식 속에 강화된 할로윈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그 언어와 관련된 문화와 전통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어 학습자들은 할로윈에 대해 더 이상 배우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태원에서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학습자들이 여전히 할로윈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신안산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모금 현황 총 108,454,747원



기업기부

50,897,500원



개인기부

57,557,247원

총 14개소의 기업체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4명의 기부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

(재)거남복지재단, (주)케이엔디시스템, (주)키스톤엔터테인먼트, (주)한국화학안전기술원, 달리아스파(신용산역점), 세무법인세광, 스킨벨리타, 신안산대학교 교직원식당, 약손명가 에스테틱(송도일공구점), 여리한 다이어트(압구정점), 주식회사 위더스산업개발, 주식회사 창일테크, (주)약손명가아카데미

■ 개인

강병대님, 강성락님, 권용광님, 김건호님, 김민님, 김세환님, 김여진님, 김영규님, 김윤성님, 김주연님, 김창언님, 김형훈님, 김환목님, 나영선님, 박영배님, 박용균님, 박제온님, 사무처 미화 일동님, 오혁수님, 이규배님, 이종규님, 이준숙님, 이혜영님, 임봉영님, 임웅환님, 조현욱님, 지의상님, 최미애님, 익명의 기탁자 5명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가
신안산대학교 미래를 바꿉니다



무통장입금

(예금주:신안산대학교)
기업은행
576-032000-01-223



방문납부

주소 (우)1543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교로 135 본관 2층 기획처
연락처 031)490-9876
FAX 031)490-8974
E-mail plpr@sau.ac.kr



CMS자동이체

외부 기탁자분들은 관련서류(사업자등록
증 or 신분증사본)을 기탁 서양식과 함께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기금 페이지